

# 비판사회학 소식지



권두언

## ‘비판의 재구성’을 위하여



백승욱  
(비판사회학회 회장/중앙대 사회학과)

비판사회학회 회원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요.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이후 우리의 삶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어떻게 바뀔지 점점 더 짐작하기 어렵고 사회학자들의 임무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여년 이상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비판사회학회와 비판사회학회 회원들은 많은 성과를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비판사회학회의 출발점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비판사회학회에 모여서 함께 무엇을 고민을 해왔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학회를 꾸려가는 연구자들이 남들을 위해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고 자신은 비켜서있게 되는 장소가 아니라 비판사회학에 대한 자신의 질문을 심화시키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을 학술대회의 형식을 바꿔보고자 합니다. 운영위원들이 각자 다른 주제를 맡아서 외부 발표자를 섭외한 다음 각기 발표를 마치고 흩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연초부터 공유할 수 있는 주제를 잡아 함께 논의해가면서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을 학술대회까지 주제를 심화발전시켜 가는 방식을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주제는 ‘비판의 재구성’입니다. 연구위원장께서 제안하시고 1월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 주제를 가을 학술대회 주제로 정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내에서 이 주제를 논의할 세 개의 하위 팀을 구성해 각 팀별로 주제를 좀 더 심화하는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정리된 논의를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함께 논의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잘 진행되면 가을 학회 이전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비판의 재구성’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함께 토론해보는 자리도 마련해보려 합니다. 함께 논의하고 함께 비판하면서, 각자의 연구 주제는 다소 다르더라도 함께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해 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면 계속)

둘째, 함께 연구할 방향을 논의하는 것과 더불어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장으로 '비판사회학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판사회학회 회원들은 사회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부생과 후배 대학원생들에게 어떤 사회학 공부를 할 것인지, 비판적 사회학이 왜 중요한지를 전달해야 하는 책임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사회학회 회원이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많고 또 개별 사회학과 내에서 충분히 담아내기도 쉽지 않은 요구들을 비판사회학교를 통해서 풀어볼까 합니다.

현재 운영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3개 정도 강좌를 준비하고 있고, 사회학과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지만 비판사회학의 특성을 담아서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의 내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세계화와 사회변동', '비판사회이론: 경제학비판', '질적연구 방법: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세 강좌이며, 7월 초부터 각 강좌별로 5회씩 추진해보려 합니다.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듣도록 소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학회가 오랫동안 예전 관행에 의존해 일상적 업무를 처리해오다보니 제도 정비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낡은 회계정리 관행이나 회원 관리 문제, 회칙과 내규가 잘 정리 안 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오래 묵힌 일들을 꺼내 처리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쉽게 바뀌지 않는 관행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와 관행의 변화 노력은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은 아니고 앞서 노력하신 분들의 성과를 이어서 계속 개선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개선을 시도한 내용 중 연말 총회 때 보고드릴 일도 있으며, 좀 더 시급하게 정리해 알려드릴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4월이나 5월 중에 먼저 회원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이제는 연구자들이 자기 전문 주제에 맞는 다양한 학회 활동에 적지 않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비판사회학회는 자기 전문성을 지닌 비판적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영역과 접근법을 가지고 있음을 장점으로 삼아 같이 모여서 결합효과를 상승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판사회학회에 모여 함께 토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시야를 더 넓힐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에서 비판적 학문이 쌓아온 역사에 자신을 결합시키는 접맥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

### 〈2021년 주요 사업 및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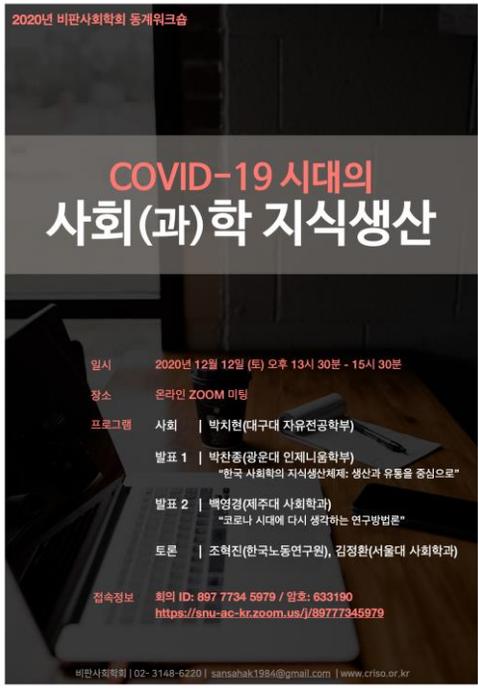
- 가을학술대회 기획세션: '비판의 재구성'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2월부터 집담회 및 세미나를 운영하여 장기간에 걸쳐 준비
- 7~8월 비판사회학회 운영  
〈세계화와 사회변동〉, 〈비판사회이론: 경제학 비판〉, 〈질적연구방법〉 세 개 강좌를 각각 5회 강의로 구성
- 회계운영제도 변경  
회계연도결산과 월별결산장부를 〈수입지출표〉와 〈자산표〉로 나누어 작성

제17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2021. 3. 26. FRI

## 탈북민북한 가족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 행사명 제17회 비판사회학 콜로키움
- 주제 탈북민북한가족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 발표 이지연(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사회 이영은(장원대학교 사회학과)
- 토론 이태형(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 일시 2021년 3월 26일(금) 오후 3시
- 장소 ZOOM 온라인 화상회의
- ZOOM 회의실 주유 공지

2020년 동계워크숍 및 정기총회 소식



2020년 12월 1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광화문의 HJ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룸과 zoom 온라인 병행으로 동계워크숍과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컨퍼런스룸에는 현직과 차기 집행부 등 최소인원만이 참석하였고, 회원들은 zoom을 통해 접속하여 워크숍과 총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행사는 총 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부는 “COVID-19 시대 사회(과)학 지식생산”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치현(대구대)의 사회로 이루어진 워크숍에서 박찬중(광운대)은 “한국사회학의 지식생산체제: 생산, 유통, 재생산”을, 백영경(제주대)은 “코로나 시대에 다시 생각하는 연구방법론”이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박찬중은 생산-유통-재생산이라는 구도로 한국 사회학의 지식생산체제를 분석하면서 사회학연구(논문)의 대량생산과 과소소비의 결합으로 특징지워지는 ‘동료없는 전문화’ 또는 ‘경쟁적 전문화’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영경은 코로나19를 사회과학에 중요한 도전을 제기한 사건으로 파악하면서 연구방법, 연구윤리, 연구자안전에 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디지털 사회학’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두 편의 발표에 대해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과 김정환(서울대)이 각각 토론을 맡았고, 이후에는 줌에 접속한 참석자들과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2부에서는 2020년에 정년퇴임을 하신 김환석(국민대), 최태룡(경상대) 회원과 2021년 2월에 정년퇴임 예정이었던 심상완(창원대), 허석렬(충북대) 회원이 “비판사회학회와 나의 학문세계”라는 주제로 정년퇴임의 소회와 과거 비판사회학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최태룡과 심상완 회원은 온라인으로, 김환석과 허석렬 회원 행사장에 직접 참석하였고, 네 분과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임영일 회원에게 비판사회학회의 감사패가 증정되었습니다.

마지막 3부에서는 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희영 회장(대구대), 임운택 연구위원장(계명대), 추지현 운영위원장(서울대)의 2020년 사업보고가 차례로 이루어졌습니다. 동계워크숍, 폴로키움, 하계워크숍, 비판사회학대회, 등의 행사보고와 함께 연구용역, 홈페이지개편, 누리미디어와의 계약수정, 학회로고개정, 학술대회 홍보용 홈페이지 구비 등의 사업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금회계보고에서는 2020년 집행부가 기존의 학회회계관리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를 발견하였고, 정확한 문제의 파악과 해결을 위해 2020년 회계는 2021년 1월 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사후감사를 받은 후 차기 총회에서 최종보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혁신위원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전진행된 회장선거에서 임운택(계명대) 회원이 차기회장(2022년)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에는 김진균학술상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제4회 김진균 학술상에는 이지연(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의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의 수행성과 분단통치성”이 선정되었고,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신임(2021년) 백승욱 회장(중앙대)의 사업계획 설명으로 총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임회장은 학회활동의 핵심인 운영위원과 편집위원이 실무업무보다는 연구활동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비판사회학교’ 등 새로운 사업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끝)

■ 정리: 박찬중 (운영위원장/광운대)

2020년 김진균학술상 수상논문

## 탈북민의 북한 가족 송금의 수행성과 분단 통치성

〈경제와 사회〉 124호 (2019년 12월)

이지연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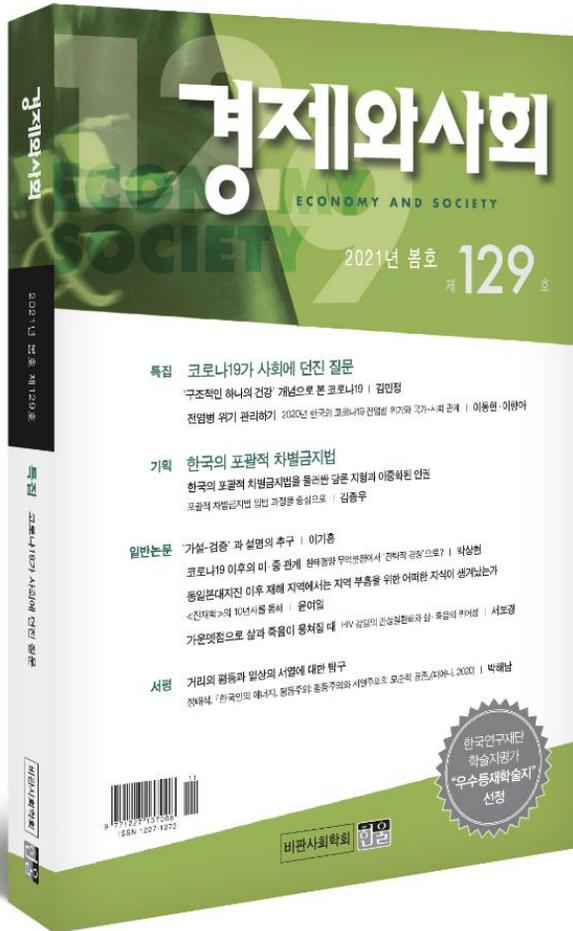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하는 송금은 남한에 있으면서도 중국을 경유하는 초국적 연결망을 활용해 북한과 현재적으로 접촉하는, 그들에게는 일상 속의 한 단면이다. 북한을 떠나 중국, 제3국을 거쳐 남한에 ‘몸’을 이끌고 온 탈북민들은 이제는 다시 ‘돈’을 매개로 그 궤적을 거슬러 올라가 북한의 가족들과 관계를 재형성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송금을 수행성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북한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돈을 통해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과 상호작용하면서 실현하는 도덕적 감정과 가치들을 해석했다. 이는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남한과 북한 사이에 낀 위치성에서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에게 하는 송금의 과정과 그 효과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둘째, 개별적으로 보이는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에의 송금이 분단을 우회하는 연결망을 생성하면서 여전히 분단국가의 통치가 실행될 때 어떻게 사회적·정치적 의미들을 구성하는지 해석했다. 탈북민들은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서 현재적으로 가족과의 유대감을 회복하지만, 송금의 반복 속에서 자신이 물화되고 도구화되는 소외감을 느끼는 양가적인 도덕감정을 갖는다. 그러나 탈북민들은 북한으로의 송금을 통해 자신이 남한에 오면서 북한에 남은 가족들이 겪게 되는 보위부 감시와 같은 정치적 낙인과 위협을 돈을 통해 물질적으로 대처한다. 이러한 돈의 효과는 일상 속에서 북한 사회 체제하에서 구조화된 사회적 관계에 기여하는 새로운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순환하며 북한 사회 내에서 탈북민의 존재성을 재구성한다. 한편, 남한에서는 탈북민들의 가족 송금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담론들은 이들의 송금 행위를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하며 억압, 색출, 처벌하는 것이 아닌 계산, 관리, 예측되어야 하는 경제와 안보의 문제로 통치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분단의 경계들도 관리되고 조율된다. 탈북민의 송금 행위는 이중적인 존재성, 즉 몸은 남한에 거주하면서 돈을 매개로 북한과 연결되는 상황을 발현시키면서 분단의 경계를 넘나드는 탈북민의 특수한 사회적 위치를 북한과 남한 양쪽에서 모두 생성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탈북민들의 위치는 여전히 분단의 경계에서 가능성과 취약성, 위협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원문링크

### 〈심사평〉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송금’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논문은 탈북민의 가족송금 행위의 수행적 효과를 가족의 차원과 남북 양국가의 통치성의 차원에서 규명한다. 저자는 가족송금이라는 사적인 경제 이전행위가 분단체제의 특수성과 결합하면서 분단체제의 정상성을 재생산하는 동시에 새로운 균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대단히 흥미로운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김진균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가족송금을 다루고 있는 논문의 주제가 신선할 뿐더러 이론적 토대가 탄탄하고 미시적 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초국적 연결망의 작동방식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을 김진균 학술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다.

〈경제와사회〉 129호(3월 발간) 목차



〈경제와 사회〉 링크

■ 특집: 코로나19가 사회에 던진 질문

‘구조적인 하나의 건강’ 개념으로 본 코로나19

김민정

전염병 위기 관리하기: 2020년 한국의 코로나19 전염병 위기와 국가-사회 관계

이동한·이향아

■ 기획: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담론 지형과 이중화된 인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김종우

■ 일반논문

‘가설-검증’과 설명의 추구

이기흥

코로나19 이후의 미-중 관계: 환태평양 무역분쟁에서 ‘전략적 경쟁’으로?

박상현

동일본대지진 이후 재해 지역에서는 지역 부흥을 위한 어떠한 지식이 생겨났는가: 『진재학』의 10년사를 통해

윤여일

기운뎃점으로 삶과 죽음이 뭉쳐질 때: HIV감염의 만성질환화와 삶-죽음의 퀴어성

서보경

■ 서평

거리의 평등과 일상의 서열에 대한 탐구

정태석, 『한국인의 에너지, 평등주의: 평등주의와 서열주의의 모순적 공존』 (피어나, 2020)

박해남

『경제와 사회』 129호는 DBpia를 통해 3월 중순부터 원문공개됩니다.

※ 이번호부터는 회비납부 회원들에 한하여 원문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논문다운로드 링크가 포함된 저널레터가 이메일로 송부될 예정입니다.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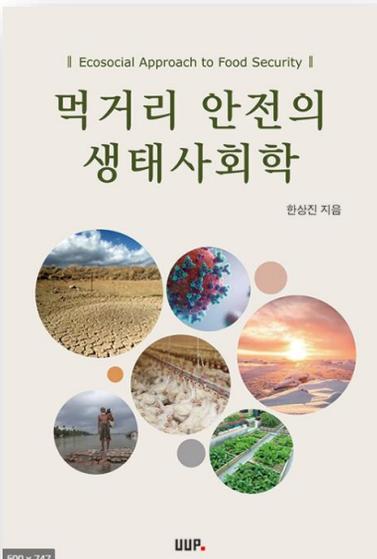
## 새내기 노동인 7ND

철수와영희, 2020년 11월, 256쪽

손석춘 (건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저자는 노동인들이 노동에 대한 열사에서 벗어나 노동인으로서 정체성을 갖추고, 일터에서 노동인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어야 일터에서 마주치는 갑질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1970년 11월 13일 부익부 빈익빈 체제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새내기 노동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온몸을 불살라 스물두살 몸 그대로 노동의 여둠을 밝히는 촛불이 된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이 책을 펴냈다.

목차링크



## 먹거리 안전의 생태사회학

울산대학교출판부, 2021년 1월, 204쪽

한상진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

〈먹거리 안전의 생태사회학〉은 감염병 팬데믹과 기후위기의 조건 속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먹거리 안전’을 둘러싼 생태사회학의 관점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식생활이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의 존속을 어떻게 씨실과 날실처럼 구조화하는가를 다룬다. 더욱이 필자는 먹거리 안전의 이슈를 기후재난 상황 아래 분배, 절차, 승인을 둘러싼 먹거리 정의의 지평으로 확장함으로써, 생태위기와 사회적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려는 생태사회학적 접근(ecosocial approach)과 야생 민주주의(wild democracy)에 근거한 원헬스 푸드 플랜(one health food plan)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다.

목차링크

회원시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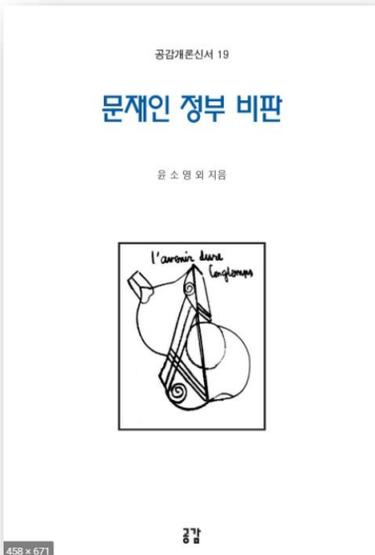
## 맑스의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에디투스, 2021년 1월, 384쪽

미하엘 하인리히 / 김원태 (경상대학교 박사후연구원) 번역

일찍이 1960년대 말 이래 서독에서 이른바 ‘새로운 맑스-독해’ 경향이던 것이 출현한다. 유럽에서의 학생운동의 폭발과 더불어 시작된 이 흐름은 그러나 1970/80년대 ‘맑스주의의 위기’를 거쳐 1989/90년의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로 “종말”을 맞이하는 듯했으나, 지구적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이 드러나는 1990년대 말 이전보다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어로 번역된 『맑스의 『자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자본』의 첫머리에 대한 독해 안내와 주해』라는 긴 제목의 책은 바로 이러한 ‘새로운 맑스 독해’의 흐름을 한 차원 발전시킨 대표적 학자로 평가받는 미하엘 하인리히의 본격 『자본』 주해서로 바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가 막 시작되려는 시점에 출간되어 판을 거듭하며 폭넓게 읽히고 있는 책이다.

목차링크



## 문재인 정부 비판

공감, 2020년 12월, 2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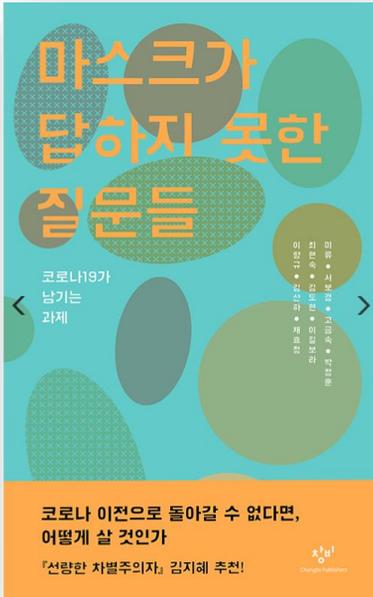
박상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안종석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외

한국에서 인민주의(포퓰리즘)의 기원과 386세대의 정치세력화와의 관계, 386세대의 심성과 프랑스 이데올로기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서 인민주의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심지어 보수주의에 미달하는 반정치적 정치이념이며, 그러한 사이비 정치이념이 결과적으로 반엘리트주의, 원한의 정치, 반의회주의, 정치의 미디어화 등의 현상으로 표출된다. 1987년 이후 한국에서 문민화가 실패하면서 인민주의가 부상해온 과정에 대한 이론적·역사적 비판을 소개한다. 정부의 인민주의를 추동하는 주체적 요인으로서 386세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 역시 제시된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북한 비핵화’, ‘검찰개혁’ 등 정부 1-3년차의 대표적인 정책을 차례대로 비판하면서 2020년 2월 이전의 정세에 대해 정리한다. 또한 2020년 2월 이후, 특히 4.15 총선을 전후해서 새롭게 전개된 정세를 분석한다.

목차링크

회원신간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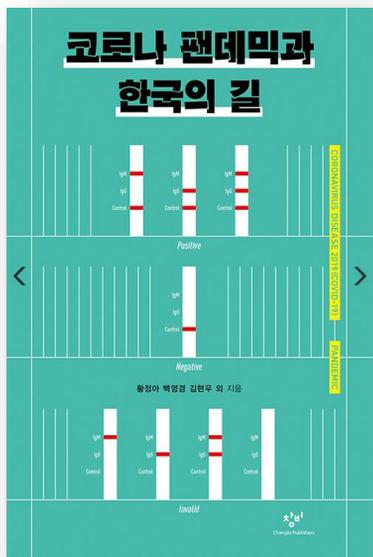
##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창비, 2021년 2월, 212쪽

서보경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외

인권활동가 미류, 문화인류학자 서보경, 플라스틱 프리 활동가 고금숙, 배달 노동자 박정훈, 홈리스 활동가 최현숙,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활동가 김도현, 영화감독 이길보라, 작가 이향규, 영장류학자 김산하, 정치학자 채효정 10인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코로나19가 드러낸 한국사회의 사각지대를 짚는다. 이들과 함께 지난 1년을 돌아보다 보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처럼 살 수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자명해진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앞에 놓인 질문에 응답할 차례다.

[목차링크](#)



## 코로나 팬데믹과 한국의 길

창비, 2021년 1월, 280쪽

백영경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외

팬데믹 1년을 돌아보며 한국사회가 떠안은 다양한 고민과 과제를 풀어낸 책이다. 우리가 당면한 이 미증유의 사태 속에서 드러난 공공영역의 부실한 체질과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살피며 개선을 모색할 때 우리 식의 코로나19 해법도 나올 수 있다는 취지로 사회, 정치, 경제, 생태, 의료, 교육, 돌봄, 노동, 농촌, 인권 등 여러 분야 연구자들의 글을 모았다. 다양한 팬데믹의 현장에서 위기가 드러낸 현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코로나19 이후 발본적인 전환으로 나아가는 구상까지 포괄한 이 책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한국이라는 장소의 감각에 충실하게 기반해 이를 대전환으로 돌파할 계기, 곧 '한국의 길'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목차링크](#)

회원시간소개



## 추월의 시대

메디치미디어, 2020년 12월, 384쪽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외

《추월의 시대》는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속 저자들이 한국의 현실에 대해 작심하고 쓴 책이다. 저자들은 그동안 1950년대 산업화 세대와 소위 '386'이라 불리는 민주화 세대의 대립으로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말한다.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과정을 거치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 '추격'을 끝내고 '추월'하는 단계에 와 있음에도 여전히 뒤쳐졌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말처럼 우리 의식 속에 내재하는 '강요된 열등감'은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게 만들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의 발전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과 그 방안,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까지 숙고해볼 수 있다.

목차링크



## 미투가 있다/있다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1년 1월, 288쪽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외

대중들이 성폭력과 관련하여 마주하게 되는 문제점이나 과제들을 법에서부터 문화와 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고 있는 연구서이다.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에서 열렸던 미투운동 월례 포럼과 <여성학논집>에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활동가에서부터 페미니스트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젊은 교수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집필함으로써 현장 활동가와 학계 연구진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한 사회의 성폭력 문제는 그 사회의 문화 및 제도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성폭력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의 사회 양상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 정책, 문화, 철학, 미디어, 여성운동 등 여러 분야에서의 복합적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미투운동이 우리 사회의 성과 성폭력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목차링크

### 회원동정

- 심상완 회원: 창원대학교 사회학과 정년퇴임 (2월 29일자)
- 허석렬 회원: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정년퇴임 (2월 29일자)
- 박종식 회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 임용 (12월 1일자)
- 황현일 회원: 창원대학교 사회학과에 임용 (3월 1일자)
- 전원근 회원: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 임용 (3월 1일자)
- 김백영 회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로 이직 (3월 1일자)
- 최규연 회원: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에 임용 (3월 1일자)

### 신입회원

- 정회원
 

윤여일 (제주대 공동자원과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박민진 (서울연구원) 김예란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박수민 (연세대 사회학과) 정수빈 (Univ. of Massachusetts Amherst)	최광은 김인수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재형 (방통대 문화교양학과) 이동현 (런던대학교) 백경훈 (이화여대)
---	--
- 준회원
 

권경철 (대전대 융합컨설팅학과) 이준호 (고려대 도시재생협동과정)	권민조 (성공회대 사회학과)
---	-----------------

### 특별회비납부

- 조돈문 (가톨릭대 명예교수): 100만원
- 강인순 (경남대 명예교수): 50만원
- 조형제 (울산대 사회복지학): 100만원
- 신광영 (중앙대 명예교수): 100만원
- 김환석 (중앙대 명예교수): 100만원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안내

- 정회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경제와 사회> 투고자격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정회원 회비: 개인의 상황과 능력에 따라 아래의 회비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1) 연 24만원 (월2만원)      (2) 연12만원 (월1만원)      (3) 연6만원 (비전임/정년퇴임교수/박사과정)
    - (4) 평생회원 특별회비 50만원 이상 (정년퇴임회원)
- 준회원: 석사과정 대학원생
  - 준회원 회비: 연2만원
- 회비납부계좌: 국민은행 533301-01-096442 (예금주: 비판사회학회)

운영위원회 활동 보고

- 2021년 1월 14일 전임-신임 집행부간 인수인계
- 2021년 1월 20일 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운영간사)
- 2021년 1월 22일 운영위원회 1차 회의 (운영위원 전원)
- 2021년 2월 8일 비판사회학대회 <비판의 재구성> 세션별 준비모임
- 2021년 2월 16일 <비판사회학교> 강좌별 준비모임
- 2021년 2월 23일 운영소위원회 2차 회의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장, 연구위원장, 운영간사)
- 2021년 2월 25일 비판사회학대회 <비판의 재구성> 준비를 위한 집담회

2021년 임원진

- |         |                                      |                      |                    |
|---------|--------------------------------------|----------------------|--------------------|
| ▪ 운영위원회 | 회장 백승욱(중앙대)                          | 부회장 임운택(계명대)         | 부회장 최인이(충남대)       |
|         | 운영위원장 박찬중(광운대)                       | 연구위원장 조은주(명지대)       | 연구위원 김도균(제주대)      |
|         | 연구위원 김명수(서울대)                        | 연구위원 김재형(방통대)        | 연구위원 김주호(경상대)      |
|         | 연구위원 김주환(동아대)                        | 연구위원 백영경(제주대)        | 연구위원 이정연(서울여대)     |
|         | 연구위원 이정은(창원대)                        | 연구위원 전원근(제주대)        | 연구위원 추지현(서울대)      |
|         | 연구위원 황선재(충남대)                        | 정책위원 박지훈(중앙대)        | 정책위원 김성윤(문화사회연구소)  |
|         | 정책위원 신희주(가톨릭대)                       | 정책위원 이태정(성공회대)       | 정책위원 홍성태(고려대)      |
|         | 정책위원 육주원(경북대)                        | 대외협력위원 박치현(대구대)      | 대외협력위원 원재연(연세대)    |
|         | 대외협력위원 조혁진(노동연구원)                    | 정책위원 최종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
|         | 대외협력위원 이철(노동권익센터)                    | 운영간사 박동열(중앙대)        |                    |
| ▪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임운택(계명대)                       | 편집부위원장 지주형(경남대)      | 편집위원 김민정(성공회대)     |
|         | 편집위원 박명준(노동연구원)                      | 편집위원 윤상철(한신대)        | 편집위원 이상철(성공회대)     |
|         | 편집위원 장구연(노동권연구소)                     | 편집위원 정태석(전북대)        | 편집위원 주은우(중앙대)      |
|         | 편집위원 최현(제주대)                         | 편집위원 구분우(중앙대)        | 편집위원 박해남(원광대)      |
|         | 편집위원 이향아(경희대)                        | 편집위원 하대청(광주과기원)      | 편집위원 김명희(경상대)      |
|         | 편집위원 홍덕화(충북대)                        | 편집위원 윤상우(동아대)        | 편집위원 이소훈(경북대)      |
|         | 편집위원 정재원(국민대)                        | 편집위원 권오용(충남대)        | 편집위원 채오병(국민대)      |
|         | 재외편집위원 구해근(Univ. of Hawaii at Manoa) |                      | 재외편집위원 권학준(리쓰메이칸대) |
|         | 재외편집위원 박현옥(York University)          |                      | 편집간사 이에진(서울대)      |